



## 최고참 양현종 “후배에게서 배운다”



KIA 타이거즈  
스프링 캠프

호주 캔버라=김여울 기자 광주일보

KIA 타이거즈 투수 최고참 양현종(사진)에게 행동 하나하나가 ‘책임감’이 아닌 ‘당연함’이다. 호주 캔버라에서 진행된 KIA의 1차 캠프에서 양현종은 ‘관람자’였다. 자신의 불펜 피칭이 끝난 뒤에도 후배들이 공을 던지는 모습을 보느라 한참 불펜에 머물기도 했고, 피칭이 없는 날에도 훈련장을 오가면서 후배들의 불펜 피칭 장면을 지켜봤다. 양현종의 ‘관찰모드’ 이유 중 하나는 ‘배움’이다. 양현종은 “시즌이 빨라져서 피칭도 거기에 맞춰

피칭 없는 날에도 훈련장 오가며 후배들 챙기고 독려  
“부담감은 선배들의 몫... 어린 선수들 경기 즐기기를”

서 준비하고 있다. 나도 후배들 보면서 밸런스 찾으려고 한다”며 후배들에게서도 배우며 빠른 개막에 맞춰 최고의 컨디션을 만들기 위해 주력했다.

또 하나 이유는 선배로서의 당연한 관심이었다. 치열한 경쟁 속에 보냈던 ‘후배’ 시절이 있던 만큼 후배들의 마음을 잘 아는 양현종이다.

양현종은 “이 시기 때는 많이 설레기도 하고, 어린 선수들은 피칭 결과에 따라서 업다운이 심하다. 그걸 조금이나마 밝게 하고 풀어주고 싶다. 그게 내 역할이다. 앞으로 연습경기 들어가면 받을 스트레스가 더 많아진다. 내가 이야기 해주면서 분위기 유

지할 수 있게 역할을 해야 한다”며 “힘든 시기이기도 하고, 가족들하고 떨어져 보내기 때문에 지칠 시기도 있다. 부담되는 말보다는 밝게 하는 한 마디 한마디가 어린 선수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생각하면서 말하게 된다”고 말한다.

분위기에 따라서는 쓴소리도 하면서 묵묵히 선배 역할을 하고 있는 그는 마운드에서도 후배들의 짐을 덜어주는 게 올 시즌 큰 목표다.

양현종은 “내가 기본적인 것을 해줘야 어린 선수들이 잘 따라와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책임감, 부담감 그런 것보다는 나도 잘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팀에 최대한 피해를 안 주기 위해 준비를 잘해야 한다”며 “올 시즌 목표도 이닝을 많이 던지는 것, 의리와 영철이에게 최대한 부담을 안 주는 것이다. 나랑, 외국인 선수들이 선배를 이끌어 가야 한다. 의리랑 영철이가 즐겁게 마운드에서 공을 던졌으면 한다. 그러면서 서서히 경험을 쌓고 배우는 것이다. 부담감을 느끼기에는 너무 어린 나이이다. 그런 부담을 갖는 건 나랑 외국인 선수들이 해야 할 역할이다”고 말했다.

양현종은 캠프에 앞서 모교 후배들에게도 선배 역할을 했다. 동성중·고 후배들에게 바람막이를 선물한 양현종은 학창초에 배트와 글러브 선물을 보내기도 했다.

양현종은 “그동안 후배들에게 잘 못해줬다. 자주 찾아간다고 했는데 가족들하고 시간 보내느라 많이 찾지 못했다. 올 시즌 잘하라는 마음과 선배로서 미

안한 마음에 선물을 보냈다”며 “감독님, 코치님께서 고맙다고 연락해 주셨는데 최대한 할 수 있는 것 있으면 하겠다. 또 내가 후배들에게 해야 다른 후배들도 하게 된다”고 이야기했다.

후배들과 따뜻한 겨울을 보내고 있는 양현종은 뜨거운 가을을 꿈꾸고 있다. 2017년 우승 주역으로 우뚝 섰던 그는 ‘가을 DNA’를 후배들에게 심어주고 싶다.

양현종은 “항상 이맘때면 기대가 되는 것 같다. 팀이 어디까지 올라갈지도 기대된다. 물론 우리 팀 뿐만 아니라 모든 팀 선수들이 열심히 하지만 어린 선수들이 한국시리즈를 경험한다면 미래가 더 좋아질 것이다”며 “조금 더 어린 나이에 큰 무대를 경험하면 좋은 자질이 된다. 기대감으로 시즌 준비하고, 좋은 결과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글=사진=wool@kwangju.co.kr

## ‘루키’ 조대현 “신인의 패기 보여주겠다”

보는 것만으로도 공부인 ‘루키’ 조대현(사진)의 호주 캔버라 스프링캠프였다.

캔버라에서 진행된 KIA 타이거즈의 1차 캠프의 막내는 조대현이었다. 이번 캠프에 참가한 또 다른 신인 우완 사이드암 김민주는 강릉 영동대 출신으로 나이로는 조대현보다 형이다.

조대현은 지난 11월 일본 오키나와에서 진행된 마무리캠프는 ‘관리 차원’에서 참여하지 못했다. 조대현 인생 첫 해외 캠프, ‘고졸 루키에게는 모든 게 신기한 캠프였다.

조대현은 “처음에는 신기했다. 작년만 해도 TV로만 볼 수 있던 선배님들과 온다는 게 신기했는데, 다 잘 챙겨주셔서 괜찮았다. 잘 지내고 있다”며 “훈련도 짧은 시간 안에 체계적으로 하니 체력 소모도 덜 하고 얻어가는 게 많은 것 같다. 피칭하거나 팀플레이 같은 것도 하면서 얻어가는 게 많아서 좋다”고 첫 캠프를 이야기했다.

캠프 초반에는 마음고생도 했다. 훈련 시작과 함

께 불펜피칭이 전개됐지만 관리 차원에서 피칭을 쉬어갔던 만큼 마음처럼 몸이 따라주지 않았다.

조대현은 “피칭할 준비가 안 돼있었다. 너무 많이 쉬어서 첫 번째 두 번째 불펜 피칭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한 것 같아서 그게 마음에 걸렸다. 감도 그렇고, 몸 스피드도 떨어진 상태였다”며 “코치님들이랑 다들 캠프 가기 전에 가서 절대 무리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너무 뒤쳐져 있는 것 같아서 많이 아쉬웠다”고 이야기했다.

출발은 좋지 못했지만 조대현은 긍정적으로 캠프를 소화하면서 호주 스프링캠프 MVP 중 한 명으로 선정됐다.

보면서 배운 것도 많다. 조대현은 “의리 형, 해영이 형을 특히 유심히 봤다. 의리형 던지는 것을 실제로 본 적이 없고 TV로만 봤었는데 캐치볼, 불펜 투구할 때 봤는데 구위가 확실히 다르다. 해영이 형은 마무리하시니까 변화구, 제구가 확실히 좋은 것 같다”며 “고등학교에만

있다가 프로 형들, 잘하는 형들 보니까 확실히 다르다”고 웃었다.

‘이게 프로다’라는 것을 실감한 조대현, 프로 데뷔를 위한 자신의 무기를 열심히 가다듬겠다는 각오다. 어느새 ‘좌완 왕국’이 된 KIA에서 조대현은 150km가 넘는 강속구를 보유한 귀한 우완 파이어볼러다.

조대현은 “강력한 구위와 볼 빠른 투수 하면 제구가 뒤죽박죽이라는 인식이 있는데 안정된 제구 이런 것으로 어필하고 싶다. 쉽지는 않겠지만 연습해서 목표를 이루고 싶다”며 “윈슨 형들이 많지만 다들 너무 잘하신다. 윈슨이 많다고 해서 오른손이 나밖에 없다는 생각 안 한다. 오른손이든 윈슨이든 형들 하는 대로 따라가서 목표치 채우겠다. 캠프 오기 전에 피칭 준비를 많이 못 했는데 내 페이스 찾아서 마지막에는 내 장점 확실히 보여주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글=사진=wool@kwangju.co.kr



## 우상혁, 시즌 두번째 우승...“목표는 세계실내육상 2연패”

체코 세계육상 네흐비즈디 대회 남자 높이뛰기 제패

‘스마일 점퍼’ 우상혁(27·용인시청)이 올해 두 번째 국제대회 우승을 차지했다.

세 번의 실내대회에서 우승 두 차례, 준우승 한 차례를 차지하며 몸을 풀 우상혁은 이제 ‘실내 시즌 목표인’ 세계실내육상선수권 2연패 도전에 나선다.

우상혁은 21일 체코 네흐비즈디에서 열린 2024 세계육상연맹 인도어투어 네흐비즈디 대회 남자 높이뛰기 경기에서 2m30을 넘어 정상에 올랐다.

우상혁의 개인 최고 기록(실외 2m35·실내 2m36)을 떠올리며, 만족스럽지 않은 기록이다. 하지만 대회가 열린 스포츠홀이 ‘기록이 잘 나오지 않은 장소’로 통하는 걸 고려하면 기록에 대한 아쉬움을 덜어낼 수 있다.

이날 우상혁은 2021년 토머스 카르모이(23·벨

기에)가 작성한 2m27을 3cm 넘어선 ‘대회 신기록’을 세웠다.

2m04부터 경기가 시작됐지만, 우상혁은 2m04, 2m09, 2m14를 건너뛰고서 2m18에서 첫 점프를 했다.

우상혁은 2m18을 1차 시기에서 넘었다. 2m25는 3차 시기에서 성공했다. 우상혁은 2m25를 넘는 순간, 에드가 리베라(33·멕시코)를 제치고 우승을 확정했다. 리베라의 기록은 2m22였다.

이후 우상혁은 세계실내선수권을 대비한 훈련을 하듯이 경기를 치렀다.

2m30을 1, 2차 시기에서 실패한 우상혁은 김도균 용인시청 감독과 짧게 대화한 뒤 3차 시기에서 바를 넘으며 대회 신기록을 작성했다.

2m34로 바를 올린 우상혁은 1, 2차 시기에서 아

쉽게 바를 건드린 뒤 3차 시기를 시도하지 않고 경기를 끝냈다.

우상혁은 지난 11월 체코 후스토페체 실내높이뛰기 대회에서 시즌 첫 경기를 치러 2m33으로 2위를 했다.

당시 1위를 차지한 셀비 매큐언(27·미국)의 기록도 2m33이었고, 성공 시기도 3차 시기로 같았다. 하지만 2m31을 우상혁은 2차 시기에서, 매큐언은 1차 시기에서 성공해 순위가 같았다.

14일 슬로바키아 반스카비스트리차 실내높이뛰기 대회에서는 2m32를 넘어 올해 첫 우승을 차지했다.

21일 현재 우상혁은 2024년 세계 실내 시즌 기록 순위 공동 1위(2m33)를 달린다.

올해 2m33을 넘는 점퍼는 매큐언과 다닐 리센코(러시아), 우상혁 총 3명이다. 2m30 이상을 3번 이상 넘는 건 우상혁 단 한 명뿐이다.

/연합뉴스

## 추신수 “류현진 복귀 환영...맞대결 기대”

한국프로야구에서 미국 메이저리그(MLB)로 직행한 첫 사례를 만들며 빅리그에서 78승을 거둔 류현진(36)과 한국인 타자 중 MLB에서 가장 화려한 이력을 쌓은 추신수(41·SSG 랜더스)가 2024년 KBO리그에서 투타 대결을 벌인다.

추신수가 2024시즌 뒤 은퇴를 선언해 ‘성공한 코리안 빅리거 출신의 투타 맞대결’이 펼쳐지는 건 올해가 마지막이다.

류현진은 곧 한화 이글스 복귀 절차를 마무리한다.

류현진의 복귀 소식은 미국 플로리다주 비로비치에서 훈련 중인 추신수에게도 들렸다.

추신수는 21일 구단을 통해 “현진이의 한국 복귀 결심을 환영한다. 타지에서 생활하며 다른 문화권에서 활동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 그런데도 좋은 성적을 보여주며 활약한 현진이가 대단하다”고 말했다.

KBO리그에서 벌어지는 류현진과 추신수의

투타 대결은 2024시즌 최고 흥행 카드가 될 수 있다

추신수는 “현진이와의 경기가 기대된다. 훌륭한 실력과 수준 높은 리그의 야구를 경험한 점을 생각하면, KBO의 흥행으로 이어지고 수준 또한 올라갈 것으로 생각한다. 현진이는 함께 야구하는 선수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기에, 미국에서 보고 듣고 느낀 점을 한국에 있는 후배들에게 많이 알려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2021년 추신수가 SSG와 계약하며 미국을 떠날 때 류현진은 “몇 년 더 여기(미국)서 같이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먼저 KBO리그로 온 추신수는 류현진의 한국 복귀를 반겼다.

추신수와 류현진은 ‘한국인 최초 빅리거’ 박찬호와 함께 ‘코리안 빅리거 역사’를 화려하게 장식한 아이러니다.

/연합뉴스